

목포대 '총장 직선제 부활' 신호탄 되나

임직원 설문 90% 이상이 찬성... 내달 공청회서 방안 마련 군산대·제주대·한국교통대 90% 이상 희망... 파급력 주목

목포대가 총장 직선제 복귀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국·공립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옛 정부에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돈줄'을 쥐고 간선제를 유도한 탓에 대부분 대학들이 반강제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24일 목포대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내년 2월 현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총장을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6월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직선제 복귀를 희망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

다.

목포대는 지난 1989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장을 직선제로 뽑는 등 가장 먼저 직선제를 도입한 대학이다.

교수평의회는 한 관계자는 "교직원 다수의 뜻에 따라 구체적 총장 선출방식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 직선제 선출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평의회는 오는 8월께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직선제 방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수평의회는 총장 선출방식이 정해지면 오는 12월께 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은 추천위원회가 선정(간선제)하거나 직원들이 합의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총장을 뽑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공립대에 가산점을 주면서 간선제를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대부분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반납하고 간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각 대학은 직선제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에 있는 군산대 역시 교수평의회가 올해 5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5명(응답률 59.4%) 가운데 191명(95.5%)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총장 직선제 복귀를 추진하는 선두주자는 한국교통대다. 교통대의 경우 교수회

가 6월 30일~7월 7일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참여자 275명(참여율 83.3%) 가운데 94.9%인 261명이 직선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교통대는 이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해 직선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대는 지난달 19~20일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 투표(참여율 88.7%)한 결과 투표자 816명 가운데 747명(91.5%)이 직선제를 선택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총장 선거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총장 임기가 끝나는 곳(총장 공석 포함)은 모두 13곳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횡단보도 그늘막서 잠시 쉬어가세요” 광주·전남을 달구는 ‘한중막 폭염’이 이어진 24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앞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설치돼 보행자들이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늘어가는 ‘홀로 죽음’

광주·전남 6년간 238명... 전국 5년간 77.8% 증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고독사(孤獨死)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다 사망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238명이었다.

최근 6년간 광주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5명, 2012년 3명, 2013년 14명, 2014년 5명, 2015년 10명, 2016년 1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남에서는 2011년 20명, 2012년 23명, 2013년 25명, 2014년 49명, 2015년 32명, 2016년 39명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30명 이상이 홀로 죽음을 맞았다.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746명이었고 이어 경기 962명, 인천 483명, 부산 407명, 경남 324명 순이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로, 사실상 고독사를 의미한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5년 동안 77.8%나 증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우 둔갑한 미·호주산 쇠고기

광주·전남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16곳 적발... 11곳 명단 공개

외국산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던 광주·전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역(향토) 음식 특화 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기획 단속해 음식점 등 16곳을 적발하고, 11곳의 업소명을 공개했다.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소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9곳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2곳이다. 이들 업소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해당 업소 주소와 업소명, 위반내용 등이 공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 음식점 대부분은 미국산·호주산 등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팔려는 수천인본의 음식을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과 육안으로 쉽게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위반 유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6	해질	07:23
해질	19:41	달질	21:04

폭염 식하는 비
찬동·번개·돌풍 동반한 비 오는 곳 있었다.

◇지역별 날씨(℃)
광 주 가온 히리고 비 26/33 보 성 가온 히리고 비 25/32
목 포 가온 히리고 비 26/31 순 천 가온 히리고 비 27/33
여 수 가온 히리고 비 27/32 영 광 가온 히리고 비 26/31
나 주 가온 히리고 비 26/33 진 도 구름 많음 26/32
완 도 구름 많음 27/32 전 주 비온뒤 맑 26/32
구 레 가온 히리고 비 25/32 군 산 비온뒤 맑 26/32
강 진 가온 히리고 비 26/32 남 원 비온뒤 맑 25/33
해 남 구름 많음 25/32 흑 산 도 히리고 한때 비 23/28
장 성 가온 히리고 비 25/3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북동~동 0.5~1.0
남부 먼바다(동)	서~북서 0.5~1.0	북동~동 1.0~1.5
서부 먼바다(서)	남서~서 0.5~1.0	북동~동 1.0~1.5

◇돌때

목포	밀물	썰물
	08:45	03:36
	20:51	15:39
여수	밀물	썰물
	04:13	10:23
	16:22	22:54

◇주간 날씨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8/1(화)
☀	☀	☀	☀	☀	☁	☀
26/32	24/33	24/33	25/32	25/33	25/32	25/32

◇생활지수

- 식중독
- 자외선
- 피부질환

8월 국지성 폭우 잦고 9월까지 무더위

올 여름 무더위는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3개월 전망에 따르면 9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평년 25.8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 역시 평년 260.1mm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9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영기자 young@

“박근혜 정부, 광주교육청 길들이기 했다”

황홍규 부교육감 “지난해 ‘신 삼청교육대’ 끌려가 교육받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교사 징계,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광주시교육청을 길들이기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4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과 전교조 징계, 역사 국정교과서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12주 동안 연수를 받았다. 해당 연수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각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광주시교육청에 부임한 황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임명된 일선 시도 부교육감의 평균 근무기간인 1~2년을 지나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황 부교육감이 이런 처우를 받은 것은 현 정부와 시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으로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 황 부교육감이 정부의 편에 서지 않은 데 따라 보복성 인사 초저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